

# 희생명당 풍수설화에 나타난 구복(求福)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일고찰

-‘사자생손형(死子生孫型)’, ‘유복자삼정승형(遺腹子三政丞型)’,  
‘재취후손형(再娶後孫型)’을 중심으로-

홍나래\*

<차 례>

1. 서론
2. 희생명당 풍수설화의 존재 양상
  - 1) 사자생손형
  - 2) 유복자삼정승형
  - 3) 재취후손형
3. 구복 행위의 의미와 욕망의 문제
  - 1) 증여관계로 본 복과 희생 : 신성재로서의 명당과 금기
  - 2) 희생에 내재된 폭력성과 도덕성의 문제
4. 구복 결과에 반영된 욕망에 대한 반성적 고찰
5. 결론

## <국문초록>

풍수설화 중에는 명당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이나 아내가 죽거나 처녀가 사생아를 낳는 등 희생이 따르는 이야기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희생명당이라고 명하고, 인물들이 복을 찾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면서 당대 생명윤리나 성윤리에 반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통용될 수 있었으며 또 그 속에 어떠한 사고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풍수설화는 선과 복을 증여관계로 인식하면서, 복이 나오는 통로로 명당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희생명당 설화에 이르면 언제 복을 받을지 모를 불분명한 선

\* 이화여대 시간강사

행보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명당을 점유함으로써 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명당을 획득하기 위한 희생은 가장의 죽음, 아내의 죽음, 젊은 여인의 생식력처럼 인간의 생명·삶이므로, 이는 복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제의적 희생이자 의지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한 욕심이 결국 출세할 손주를 얻고자 살아있는 아들을 희생하는 데에 이르면서, 희생명당 설화에서도 욕망이 끊임없이 재생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인과 가족을 희생했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서라면 욕망하는 주체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희생은 욕망을 향해가는 인간에게 초월적 힘이 보여준 경고이자 금기였던 것이다.

희생명당 설화는 인물들이 받은 궁극적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 해석 과정에서 설화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풍수, 명당, 희생명당, 사자생손형, 유복자삼정승형, 재취후손형, 구복, 증여, 신성재, 욕망, 귀태, 가계계승

## 1. 서론

풍수설화의 유형 중에는 명당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이나 아내가 죽거나 처녀가 사생아를 낳는 등 만만치 않은 희생이 따르는 이야기들이 있다. 풍수설화가 남성위주의 꿈과 소망, 즉 적계 후손이 복을 얻고 가문을 지속시키는 욕망을 담는다는 점에서,<sup>1)</sup> 위의 서사들이 가문을 위해 인간을 도구화하며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명당과 복, 가족과 희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순하지 않아 설화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1) 강성수, 『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발복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편)』, 이화어문학회, 월인, 2001, 43쪽.

동안 남아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삶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복을 받기 위한 명당을 가르쳐주거나 수용하는 이야기들은 기존 연구에서 대개 ‘사자생손형’, ‘유복자삼정승형’, ‘재취후손형’으로 명명되었다. 풍수설화의 경우 내용이 다양하여 갈래연구만 해도 지관, 명당을 얻는 수용자, 발복의 내용, 화소나 주제, 지형상의 특징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룬 내용들은 주로 ‘명당발복담’이라는 범주 속에서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졌으며, 이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자생손형’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다. 재취후손형의 경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상대적으로 적은 각편이 채록된 만큼 연구에서도 사자생손형처럼 주목받지는 못하다가 강성숙이 풍수설화를 주인공의 상황과 발복 내용에 따라 ‘금시발복’, ‘사자생손’, ‘재취후손’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유형들과 대등하게 다루어졌다.<sup>2)</sup>

위의 설화군은 기존 연구에서 풍수설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강한 혈통의식과 가문중심의 사고, 신분상승에의 욕망, 여성의 역할과 문제 해결 양상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야기란 주요 이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때로 은밀하게 대립되는 사고도 담게 되므로, 개별 유형만 분석하기

2) 최래옥(『고목생화설화의 성격』, 『관악어문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임갑량(『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 13, 한국학연구소, 1986), 장장식(『풍수설화의 유형분류』, 『한국민속학』 22, 민속학회, 1989), 신월균(『풍수설화』, 밀알, 1994), 강성숙(『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발복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편)』, 이화어문학회, 월인, 2001)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임갑량, 장장식 등의 연구에서는 명당발복담이라는 범주 아래에 사자생손형과 유복자삼정승형을 대등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체로 사자생손이라는 명칭이 유복자삼정승형 보다 전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갈래분류에서도 이들을 대표하기도 한다. 최래옥의 경우 사자생손형 설화를 고목생화枯木生花설화로 칭했고 이를 다시 영교득손형靈交得孫型和 출지득손형出地得孫型로 나누었는데, 이는 곧 사자생손형과 유복자삼정승형 설화이다. 최래옥처럼 신월균, 강성숙의 연구에서도 유복자삼정승형을 사자생손형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비슷한 유형들을 묶어 살필 때 다채롭게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러나 풍수처럼 이야기가 풍부한 설화군의 경우 전반적인 양상 속에서 고찰하다 보면 개별 유형에 담긴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재와 주제별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성차나 가문의식보다 복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명당이 작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또 설화에서 형상화된 복과 그 구현 양상에 드러난 가치의 문제에 보다 면밀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누군가의 생명(삶)을 희생하면서 얻게 되는 명당을 ‘희생명당’이라고 칭하고, 이와 같은 소재적 유사성으로 작품을 추출하였다. 갈래 분류가 주목적이지 아니므로,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체계 속에 구분 짓던 유형일지라도 한데 모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하위유형의 명명은 기존에 통용되던 세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식을 낳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 할 수 있는데, 풍수설화에서 복이란 것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거나 부자가 되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려진다.<sup>3)</sup> 그런데 적선을 해서 좋은 묘자리를 받아 주인공이 당대나 후대 혹은 금시발복하는 여타 이야기와 달리 ‘사자생손형’과 ‘재취후손형’에서는 아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유복자삼정승형’에서는 성공할 자손을 위해 가장들이 모두 목숨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욕망과 가치, 생명과 희생의 경중을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데에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욕망 성취 과정을 당대 혹은 오늘날조차 이념화된 형상이라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목숨·삶을 바치고 복을 받기 바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3) 최래옥(1977) 등 풍수설화 연구에서 복(福)은 수부귀(壽富貴)로 요약된다.

로 그 사고체계 속에 내재된 복과 생명의 증여 구조를 살핌으로써 구복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증여체계로 복을 이해하는 것은 복과 연관된 사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설화세계의 시각을 드러내리라 예상된다.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 희생명당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도덕성의 문제는, 설화가 비단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반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구비설화의 경우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대계』의 부록편인 『설화유형분류집』에서 212-1 ‘명당 잡아준 명풍수’와 633-7 ‘죽은 남자와 동침하고 자식 낳기’ 분류 중 해당되는 각편들이다. 또한 『한겨잡록』, 『계서야담』, 『나손소장본』에 등장하는 동일 유형의 문헌설화를 분석 과정에서 참고하고자 한다.

## 2. 설화의 전승 유형

### 1) 사자생손형

	출처 (『대계』 쪽수)	각편 제목
1	1-7 722	사자생손(死者生孫) 자리
2	1-8 375	사자생남좌 낙화성실향(死者生男坐 落花成實向)
3	2-4 733	죽은 송장이 산 자식 본 묘자리
4	2-8 323	십년 공부 못 채운 지관(死子生孫之地) 2/2
5	2-8 490	죽은 사람이 산 자식 본 묘자리(死者生存之地)

	출처 (『대계』 쪽수)	각면 제목
6	3-1 237	아들 둔 명당
7	3-3 620	죽은 손자에게서 산 손자 본 이야기
8	4-3 609	아들없이 손자 얻은 명당
9	4-4 752	사자유손지혈(死者遺孫之穴)
10	4-6 143	사자유손지혈(死者遺孫之穴)
11	5-3 132	현풍 곽씨의 무자혈손지지(無子血孫之地)고목생화형
12	5-6 655	무자생손지지(無子生孫之地)
13	6-4 462	사자생손지지(死者生孫之地)
14	7-1 221	사자생손(死者生孫) 자리
15	7-1 437	사자생손(死者生孫) (2)
16	7-3 211	윤태사집 사자생손(死者生孫)
17	7-7 793	무자생손
18	7-13 267	귀신의 아들로 대(代)이온 집안
19	8-3 150	사자생손(死者生孫)의 혈(穴)
20	8-4 674	처녀에게 수태시킨 영혼
21	8-5 878	고성 원님 딸과 혼인한 죽은 청송 양(楊)씨 아들
22	8-7 115	사자생손(死者生孫)
23	8-8 402	사자생손(死者生孫)
24	8-10 65	회덕 송씨(懷德宋氏)와 망자득손(亡子得孫)
25	8-12 570	사자생손(死者生孫)
26	8-14 301	죽은 나무에 열매맺는 묘터
27	8-14 793	고목나무에 핀 꽃

구비설화로 광범위하고 활발히 전승된 이야기 유형으로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과객(중, 지관)이 어느 대갓집에 유숙했더니, 주인은 미혼에 죽  
은 아들의 시신을 장사지내지도 않고 부모보다 앞서 갔다며 때리고 있었

다. 상심한 주인에게 과객이 죽은 아들로 손자를 볼 자리를 소개해주자, 여기에 시신과 함께 칼(죽보,부채)을 넣어 안장했다. 어느 날 고을에 부임 하던 원님 일행이 지나다가, 원님 딸이 무덤 옆에 잠시 머물렀는데(그 이 유로는 비를 피하다, 소변 때문에, 가마꾼의 발이 안 떨어져서 등) 혼령이 무덤을 열고 나타나 여인을 겁간한 후 칼(죽보,부채)을 주고 사라졌다. 이 후 처녀가 임신해서 부모가 분노했으나 처녀는 묘 옆에서 있었던 신이한 일 외에는 어떤 부정도 없었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징표를 보였다. 부모는 딸의 말을 듣고 잔치를 열어 아이의 할아버지를 찾았고, 원님의 딸은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대부분 사자생손혈의 존재도 모르는 주인에게 이를 권장한 것은 과객이다. 임신사건의 경우 남녀가 보고 좋아서 호합하는 <19>를 제외하면, 처녀가 비몽사몽간(꿈결)이었거나 갑자기 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묘가 갈라지거나 혼령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옆에 떨어진 칼을 주운 경우(25), 손만 가마에 쑥 들어오는 경우(27)도 있다. 혼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설명하는 각편(2)도 있으나, 아무 것도 모르는 처녀가 불쌍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거나(1) 남편 혼령이 여인에게 자식을 보고 살라고 위로하는 경우(18)도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하고 과부가 된 상황에 분개하여 여인이 대사나 시부에게 칼부림을 하는 이본(8.9.10)도 있다.

## 2) 유복자삼정승형

	출처 (『대계』 쪽수)	각편 제목
1	1-8 506	산중구연(山中求緣)
2	2-2 391	호식명당(虎食明堂)

	출처 (『대계』 쪽수)	각편 제목
3	2-7 530	삼정승 육판서 명당
4	3-2 424	삼형제 죽고 만대 발복한 명당
5	3-4 481	삼형제 죽이고 세 정승 난 사공집
6	4-4 129	유복자 삼정승 날 명당
7	6-1 339	삼대 정승 낳은 명당
8	6-10 434	현풍 곱씨의 삼정승 날 무덤
9	6-12 609	세 과부와 삼정승이 난 뫼타리
10	7-3 357	삼태(三胎)이야기
11	7-8 359	묘터 잘 봐 삼정승 난 이야기
12	7-14 113	호식해 가고 삼정승 난 묘터
13	8-5 658	첫날밤 호식된 이야기

이 유형의 명당은 삼정승 손자들이 날 곳이지만 상주를 포함한 아들 셋이 부친의 삼년상을 치를 때까지 차례로 사망한다는 곳이다. 터를 잡아주는 지관(대사) 역시 아들들에게 좋은 곳이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선뜻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 당대발복하여 부자가 될 곳과 이 곳 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말한다. 묘 터는 주로 상주인 아들이 결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 본인이 생전에 결정하거나(1) 유언으로 지관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다(13).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이거나 망설임이 없으며, 형제들이 서로 상의하더라도(7) 곧 뜻을 맞춘다.

이야기 유형은 결말에 따라 형들이 죽지만 막내는 살아남는 경우(2,3,8,9,12,13)와, 삼형제가 모두 죽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형제들의 사망원인은 호환으로 셋째 아들 역시 혼인 첫날밤 신부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후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세월이 흐른 뒤 집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이다. 얼굴도 잊어버린 부부가 사연을 맞추



어 보고 성공한 자식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진다(<9>의 경우 호환은 아니지만 세월이 흘러 남자가 찾아온다). 후자의 경우 언달아 사망한 형들을 보고 미혼인 셋째 아들이 집을 나섰다가 우연히 노파의 집에 머물다 혼인 전날 노파(유모)를 찾아 온 정승 딸을 겁간하고 곧 사망하게 된다. 정승 집에서는 분노했으나 어쩔 수 없이 혼인을 물린 후 상여와 함께 소복을 입혀 딸을 남자 집으로 보낸다. 딸은 그곳에서 세쌍둥이를 낳아 과부 형님들과 나누어 키우게 된다. 아이들은 삼정승, 때로 그 후손들까지도 육판서가 되어 가문을 빛낸다.

문헌설화의 경우에는 『나손소장본』에서 호환당한 후 막내가 살아남는 구비설화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4)</sup> 전라도 함평의 이장업이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평소 부친의 명대로 지관에게 장례를 일임하였더니, 지관은 첫날밤 호환당하더라도 후손이 잘 될 자리로 터를 잡아주었다. 이장업이 혼인 첫날 신부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후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가 15년 후에 돌아와 과거급제한 쌍둥이 아들 및 아내와 상봉하였다는 내용이다. 문헌과 구비설화의 내용이 유사하며 변이의 폭도 크지 않아 그 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나손소장본』은 정명기(1987) 『한국야담자료집성』 12권, 85쪽에 수록된 李長業據證 一門慶會이다. 이장업 이야기의 전반은 이장업의 부친이 아들이 없어서 천문지리와 음양술수에 정통한 이웃 김씨에게 부탁하여 아들 낳을 곳으로 부모 묘를 이장하고자 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김씨가 추천해준 곳은 이씨(이장업의 부친)가 아들 10세 때 사망한다는 곳이었는데, 이를 감수한 부친이 사망하자 그 장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다시 김씨를 찾은 것이다.

## 3) 재취후손형

	출처 (『대계』 쪽수)	각편 제목
1	3-4 155	미누라 죽여 아들을 두게 한 명당
2	3-4 456	참외 얻어 먹고 당대 발복시킨 도선
2	4-2 174	일이대사(一耳大師)보다 나은 지사(地師) 곽상(郭象)

재취후손형의 경우 『대계』에서는 3편이 채록되어 다른 유형에 비해 편 수가 적지만, 문헌에서는 『계서야담』, 『한거잡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도사를 정성껏 대접하자 도사가 자식을 보게 할 명당을 소개해준다. 남자가 이장하려 할 때 선비(유학자, 박상위 등)가 나타나 그보다 조금 밑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옮겼더니 곧 아내가 사망하고 말았다. 도사는 양자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소개했으나 선비는 늙은 아내가 사망하고 재취하여 득남(친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장한 것이다. 구비설화에서는 특히 아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도사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취후손 자리에 대한 논란은 도사와 선비(지관)의 논쟁으로 서술되지만, 재취 후 자손들을 얻고 가정 이 부유해졌다는 결론으로 서사 내에서는 선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거잡록』도 구비설화와 유사하나, 『계서야담』의 경우에는 외아들이 죽어 슬퍼한 주인에게 과객이 선산을 이장하게 하여 아내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변이되었다. 이로 인해 주인은 재취하여 후손을 보게 되고 이후 이인 며느리를 들여 가문을 보존하게 된 이야기가 첨부된다.<sup>5)</sup> 문헌에서

5) 『한거잡록』의 경우 정명기(1987), 앞의 책 1권, 649쪽. ‘地師報德 李公某爲某邑倅’, 『계서야담』의 경우 유희수·이은숙 역주(2003), 국학자료원, 169쪽. ‘임란을 예견한 못생긴 며느리’(嶺南某郡有一士人 年至四十餘 有獨子遭憾)의 내용이다.

는 ‘사자생손형’보다 ‘재취후손형’을 더 찾기 쉬운데, 설화전승층이 혼령에 의한 임신보다 재취하여 손을 잇는 것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sup>6)</sup>

### 3. 구복 행위의 의미와 욕망의 문제

#### 1) 증여관계로 본 복과 희생 : 신성재로서의 명당과 금기

부(富)·귀(貴)·자손(孫)은 풍수 설화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욕망으로 인물들은 명당을 통해 이 결핍을 해소하면서 현세구복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한다.<sup>7)</sup> 부·귀·손의 결핍이 해소되는 상태를 복이라 했을 때,<sup>8)</sup> 본고에서 살펴 본 설화들 역시 자손과 권세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후손을 얻음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아들에게서 손자를 바라고, 별 볼일 없는 자식들에게서 삼정승 육판서 손주를 꿈꾸고, 나이 든 노부부가 아들을 바라는 형편이다.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는 명당을 차지하여 그 특별한 힘을 취해야만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풍수설화에서 명당은 어떤 곳인가? 장장식에 따르면 풍수설

---

6) 풍수설화에서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강진옥(『구전설화유형군과 의미층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장장식(『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강진옥의 경우 구비설화는 많은 부분이 수용자의 우연성에 초점을 두고 문헌은 보은을 바탕으로 지관의 이인적인 면모를 강조했다고 하였다. 장장식은 문헌설화의 경우 신분문제 강조, 명당획득에 대한 관심이 도덕률과 이론허 타당성을 얻고자 한 점, 현실도피적인 이상향 제시, 서사의 길이가 장편화 된 점을 특성으로 들었다.

7) 최래옥, 위의 논문, 1977. 신월균, 위의 책, 1994.

8) 장장식, 앞의 논문, 1992, 197~204쪽.

화에서 구현하고 있는 명당은 전승집단이 이해한 신성한 세계,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복복의 근원이 된다는 신앙의 계기라고 하였다.<sup>9)</sup> ‘한양조씨 시조담’(『대계』 1-1 589)에서 첫날밤 해산한 신부를 용서한 남자는 그 소생자에 의해 명당에 묻혀 대대손손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지만 ‘살인하여 발복하지 못한 명당’(『대계』 7-16 305)에서 악인의 후손들은 명당에 묘를 써도 망한 것처럼,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의 내용은 풍수서뿐만 아니라 풍수설화에서도 누누이 강조되는 진리이다.<sup>10)</sup> 이처럼 명당은 발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만, 누구나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으며, 신령한 곳이란 본디 여러 금기에 둘러싸여 때로 부주의하거나 망설임 때문에 사람들은 운 좋게 이곳을 취했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조상의 과오로 명당의 덕을 못 보기도 한다.<sup>11)</sup>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설화전승층의 믿음은 복과 인간의 관계를 주기와 받기, 그리고 답례라는 거대한 증여 체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복을 증여하는 쪽과 받는 쪽을 구분하고, 선을 행한 사람

9) 장장식, 앞의 논문, 1992, 272~273쪽.

10) 설화유형으로 살펴보면 『설화유형분류집』 432-7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221-1 이인이 잡아준 명당 발복하지 못하기 항목이다. ‘한양조씨 시조담’에 대한 내용은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설화에 나타난 덕의 의미와 그 수용양상, 『구비문학연구』 33집, 구비문학회, 2011)에 언급되었다. 풍수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권선정,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풍수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의 지리학적 해석-, 『지리학연구』 제38권 3호, 2004.

11)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23~216쪽.

12)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명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리스 고들리에의 신성재 개념을 참고하였다; 마르셀 모스, 『증여론』, 류정아 옮김, 한길사, 2002; 모리스 고들리에, 『증여의 수수께끼』 오창혁 역, 문학동네, 2011.

들이 그 답례로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 역으로 부·귀·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끼게 하고 답례를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물론 초월적인 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의 답례는 공동체에 선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욕심 많은 장자가 시주를 거부하다 망하게 되고 지역민들을 살핀 부자가 대대로 부를 이어갔다는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 속에서 복과 인간의 관계가 주기와 받기라는 증여의 관계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다는 전승층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의 시혜와 수혜, 적선과 보은이라는 증여 관계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위를 지향하지만, 설화에서는 선과 적악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게 실현되므로 실제로 복과 적선의 관계는 의무적인 급부의 성격을 지니며 순환된다.<sup>13)</sup> 그런데 이와 같은 복-적선의 급부 체계가 타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속적인 시간성과 명당이라는 공간의 신성성 때문일 것이다. 선한 행동은 현재가 아니라도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은<sup>14)</sup> 현세의 기복적인 욕망을 희생과 헌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획득된 명당이 신성한 힘의 증거로 작용하면서 인간은 개인을 떠나 운명과 연결되며 그 성취를 통해서도 초월적 힘 앞에 겸허해지게 된다. 이처럼 풍수설화에서 초월적인 힘과 인간이 시간과 공간으로 엮이면서 인간과 복의 증여 체계는 호혜적 관계로 공고히 순환되고 있다.

풍수설화에서 명당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인간이 복이라 칭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통로이고 운명(복)과 인간을 매개하는 곳이다. 그리하여 명당에는 이를 점유한다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13) 마르셀 모스, 위의 책, 2002, 30쪽 참고.

14) 홍나래, 위의 책, 2011, 217쪽.

있는 초월적 힘도 획득될 수 있다는 신앙이 내포되어 있다. 고들리에에 의하면 신성재란 사물(여기에서는 복)의 기원을 설명하는 물건,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증여한 물건이자 인간이 사물과 맺는 일정한 유형의 관계를 함축하고 통합하여 보여주는 상징가치로 충만한 물건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명당에 대한 이해 역시 이와 동일하다.<sup>15)</sup> 이로 볼 때 명당은 복을 주는 초월적인 힘이 인간에게 증여한 신성재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성재가 인간과 초월적 존재가 맺는 관계 및 인간의 사회적 관계 내용을 함축하고 그 취득 과정에서 권력과 욕망을 승인하며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해 낸다고 할 때,<sup>16)</sup> 명당이라는 신성재를 통해 복과 인간의 증여관계가 갖는 물신성과 그 취득과정을 통해 재생산하게 되는 공동체·가족 간의 관계와 규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사자생손형 1>

주인이 그러롬 잘 대우를 해 주고 그러니깐두루 동냥을 다니다가 해가 저서 그 집을 딱 들어왔어. 그래 저녁상을 같이 내왔는데, 밥을 한 숟갈을 떠 떠서 아깐 ‘고시래’라고 그랬지만, 자기 밥그릇에 이렇게 놓구서 쳐다 보구서는 한숨을 췌 쉬구서, 그 밥을 먹드래는구만. 그래 주인이 같이 겸상을 해서 먹다가서, 다 먹구나서 거 샌님 밥을 떠 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놓구서 한숨을 쉬는데,

“거, 무슨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깐두루,

“기가 막힌 사연 보면 모르겠어?”

“거, 무슨 말씀이오신지?”

“저 뒤포장에 우리 아들 녀석시오. 구(九)대 독신 아들인데 저 놈이 죽어서, 내가 갖다 묻기가 아까워서, 지금 내가 말려서 저기다 복자에다 끼워놓

15) 고들리에, 위의 책, 2011, 246~254쪽.

16) 고들리에, 위의 책, 2011, 246~265쪽 참고.

구서 내가 지금 있다.” 구, 그러니깐두루,

“그러면, 거 사자생손 보는 자리가 있는데 갖다 그걸 묻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깐,

“하 그런 자리가 있냐?” 구.

“있다.” 구.

“그럼 좋다.”

<유복자삼정승형 11>

예전에 어느 도사가, 도사가 짚을 이레가다가 이레 보니 날은 곳고 그비  
피해로 들어갔더니, 그 집에 가가이고설랑 한 삼일 유했다 이기라. 삼일을  
유했다 이기라. 그래 유해가이고 설랑 이레 거석하니 그 집에 가보니말이라,  
주인이 대접하는 것이 시종이 여일하기 아주 처음 끝까지 아주 여일하기 말  
이라, 머 가정은 홀룽치 않은데 그 아주 마 성의껏 대접을 잘하더라 이기라.  
그래 비는 머나 하먼 한 삼일 동안 막 소내기가 쏟아져고 이런데, 삼일을  
얻어 먹고 이레 거석하니 기양 올 수도 없고. 그래 도사 하는 말이,

“그런기 아이고 주인의 보답이라 키는 건 다름이 아이고 나는 머 나왔 다  
보이 아무 것도 없고 이레 거석하니 내가 보답 드릴 것은 산리(山理) 를 내  
가 하나 봐 주고 가겠다.”

이기라. 산리를 봐주고 가겠다 이긴데,

“당대 백 석 날 재털(자리를) 잡아 주까, 아들 삼형지 있는 거 다 죽어도  
삼 정승을 날 재리를 잡아 주까?”

이레 물으니까, 그 주인 말씀이 머라 키는기 아이라,

“아들 삼형지 다 죽어도 삼 정승 날 재털 잡아들라.”

<재취후손형 『한거잡록』>

옛날에 풍수지리에 정통한 지관이 시골의 한 집에 투숙했는데 주인영감  
이 상제였다. 아침저녁으로 대접이 극진하자 지사가 그 후의에 감동하여 보  
답하고자 장지를 구했냐고 물었다. (중략) 주인영감이 말하기를 “참으로 소

원이 있으니 청하지 않을 수 없소. 나의 집안이 이미 넉넉하여 다른 것을 구할 바는 없으나, 나이가 오십이 지나도록 자식을 두지 못했으니, 만약 그 대가 후사 볼 자리를 얻게 해줘서 제사를 끊지 않게 해준다면 복이 되겠소.” (중략)

마침 반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니 주인영감의 아내가 갑자기 앓더니 죽었다. 3년 후 젊은 여인과 재혼해 아들 셋을 낳았다. 10년이 지나 지사가 왔기에 주인영감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책망했더니 지사가 웃으며 “주인 내외는 해로하며 아이를 낳을 길이 없었으니, 끊지 않았다면 어찌 아이들과 즐기겠습니까? 이에 제가 터를 골라 안장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17)</sup>

희생명당 설화의 인물들은 단지 현재보다 나은 부와 출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식에게서 손주를 보거나 단산한 늙은 아내에게서 아들을 원하거나 평범한 집안에서 곧 정승 셋을 배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명당은 불가능한 소원을 들어줄 만큼 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기대처럼 그들이 소개받은 명당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죽은 아들의 혼령이 손자를 보게 할 곳, 유복자로 삼정승이 될 곳, 아내가 급사하여 재취할 곳 등 정확하게 용도와 효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명당을 통해 부여될 복이 순리를 역행하는 만큼 명당의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생명—아들 셋, 이제까지 함께 산 아내, 젊은 처녀의 명예와 생식력—이 요구된다. 인물들이 접대한 과객이나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친절의 답례로 받은 묘 터라고 하기엔 대가가 단순하지 않다.

17) 古有一地師精通堪輿之術常出行投宿於一村舍 主翁乃棘入也 一見款待之善饋朝夕 地師感其厚意欲報一飯之德 問其過葬與否(중략) 棘人曰 不敢請固所願也 吾家計稍饒無他所求而 年過五旬尙無一子 若君得嗣之兆毋至絕祀之境 則幸矣(중략) 及其返虞以歸 主翁之妻患急痛而死 過三霜後繼娶年少之婦 次第生三子 十年後 地師果來 主翁以喪耦歸咎 地師笑曰 君內外偕老懷孕無路 若不斷 何以弄玉童 此吾所以擇地而葬也



명당을 골라 준 지관은 명당에 기입된 희생의 조건을 알고 있었고, 명당을 수용한 인물들 역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겠다는 인물들의 열망이 금기로 가려진 명당에 희생을 제의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복을 자신의 운명 속에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사실 신성재를 통해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운명을 주재하는 비가시적 세계의 힘은 분명 인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또한 인간은 생명뿐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정황들 속에서 이미 복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을 행한다거나 복 받을 만한 일을 계속 수행한다고 해도 복에 대한 우리들의 청원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8)</sup> 이로 볼 때 희생명당 서사에서는 언제 받을지 혹 못 받을지도 모르는 선-복의 증여체계에서 답례가 불분명한 선행보다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증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시하지 못할 제의적 희생으로, 인간이 먼저 생명을 증여함으로써 초월적 힘과 소통의 길을 열고 복을 기다리는 것이다. 선한 행동을 하면 명당을 얻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복의 증여체계에 대한 믿음이 희생명당 설화에 이르러서는 희생을 감행해서라도 명당을 얻어 복을 받아내야겠다는 의지로 한층 강화되었다.

설화의 주인공들은 지금 당장 위로받거나 조금 나아지기보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혹 다른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해서라도 현재의 운명을 부정하고 과한 복을 받기를 갈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 발복터(경제력)와 유복자삼정승터(출세), 양자 들일 곳(입양)과 친자 볼 곳(재취) 중 선택해야 했으므로 명당을 소개하거나 수용해야 할 인물들의 가치관과 의지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다른 이들을 희생시킨다는 위험한 뒷자리를 선택하면서도 인물들은 모두 흔쾌히 이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희생

18) 모리스 고들리에, 위의 책, 2011, 265쪽.

명당을 통해 얻는 가문의 발복에서 주체의 행위와 이념이 어떻게 정당화되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욕망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2) 희생에 내재된 폭력성과 도덕성의 문제

설화에서 명당을 차지하려는 인물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평범한 가정을 포기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당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곳과 아들 셋이 사망하지만 손자가 정승이 된다는 곳 중에서 당연하게 후자를 선택하거나 미혼의 죽은 자식(혼령)이 어디선가 낳을 손주를 기다리고 지관은 주인에게 명당이란 늙은 아내가 곧 사망할 터였음을 당당하게 알려준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무리 대를 잇고 성공하는 것이 당대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지만, 성공적인 결말이니 모든 게 다 좋다고 하기에는 설화에서 보여준 욕망 성취 과정이 심상치가 않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에 애착을 가진 만큼 그 죽음에 고통 받는다. 자식이 없는 노부부는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적선을 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많지만, 설화에서 절손이란 자신과 조상을 함께 소멸시키는 완전한 죽음이자 용서받지 못할 불효로 그려지면서,<sup>19)</sup> 주인의 분노와 상심에 찬 슬픔은 지나가는 객조차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게 한다. 한편 입신양명을 신조처럼 받들며 명예와 위신을 기늠하는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운을 복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자식은 나의 삶을 후대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이지만, 의미 있는 삶은 가문의 지속과 발전을 꿈꾸면서 가능해진다. 곧 자식의 죽음이란 미래에 대한 단

19) 강진욱, 위의 논문, 1986, 214쪽.

절이고 별 볼일 없는 자식들이란 희망이 사라진 미래이다.

명당의 수혜자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꿈꾸며 모든 것을 욕망에 희생시킬만한 이념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지 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걸핍된 요소들이 채워지기를 염원한 인물들이었지만, 가문이 달히고 한미해지는 과정을 보는 고통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듣자마자 이내 욕망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명당을 취득하여 복을 선택하게 된 순간부터 그들의 욕망은 가문이 적절하게 유지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비교 우위의 판단에서 양자가 아닌 친손, 일반 관리가 아닌 삼정승 육판서로 구체화되며 일반 집안이 아닌 정승(원님)의 딸, 늙은 아내가 아닌 젊은 아내를 선별하여 취한다. 욕망이 증폭되면서 걸핍을 해소해줄 상대 역시 조건으로만 평가되는 것이다.

<유복자삼정승형 1>

정승에 있으니가 아들이 있을 것 뻔하지. [웃음] 그러니까 인저, 거기다 인저 산소자리를 정해가지고서 택일을 해서 거기다 썼단말이야. 썼는데 모이 쓰고 인저 들어와서, 그간 첫날 저 뭐야, 인제 새벽제사 원 제사니깐은 [조사자: 그렇죠.] 제사를 지내구서 난데없던 놈들 밥 한 술 먹더니. 그냥 금방 거기서 배아프다고 찢찢매더니 큰 아들이 그냥 툭 죽는단 말이야. [조사자: 맞는군요.] 근데, 근데 그 큰아들도 남녀간에 손이 없어. 근데 그 이듬에 소기 때 역시 그 새벽제 지내구서 둘째아들이 그냥, 그냥 급살루 또 죽는 거야. 그래 그이 둘째아들도 손이 없어. 막내아들은 미혼이야.

(중략)

한 달 두 달 지나 십색(삭)이 꼭 차니깐두루 하루는 인저 방에 들어가서 인저 아이를 날려구 인저 아이 들이는 걸 큰동서가 들어가서,

“이건 여자를 낳던지 남자를 낳던지 나면 내 새끼니깐두루 내가 삼떡구 안으로 들어간다.”

[조사자: 아아.] 그래 들어가선 얼마씩이던지 어린애 하나를 낳는데 남자를 낳았는데 옥동자를 낳았단 말야. 그래서 인저 후산하기를 바라고 있을 꺼 아니야?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근데 아니아니하데. 찢찢매대 쌍둥이를 또 하나 낳어. [조사자: 어?] 그러니깐 거 둘째동서가,

“지(제)가 맡는다.”

고 그런단 말야. 그 때 막내는 하나도 차례가는 게 없어. [웃음소리] 그래 얼마만에 인제 또 허더니 하나를 낳어. 셋을 낳어.

아직 없는 손자로 삼정승을 바라고 나이 든 몸으로 아들을 봐야하기 때문에 ‘유복자삼정승형’의 아들들이나 ‘재취후손형’의 아내는 상을 마치자마자 곧 사망하고 ‘유복자삼정승형’·‘사자생손형’의 처녀는 단 한 번의 겁간으로 임신하게 된다. 자신들이 가진 복보다 결핍된 요소에 집중하여 그 해소에만 조바심을 내다보니 후세를 위해 가문의 토대를 다지거나 미래를 계획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물들은 명당을 선택하여 죽음, 겁간 등 복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적으로 환경변화를 야기하면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은 가문이라는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할 뿐 개별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유복자삼정승형’에서도 가장은 명당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삼정승의 친부가 된 막내아들은 다른 집안과 혼인날을 받은 처녀를 겁간하여 임신시켜 버린다. 위의 예에서 언급되듯이 동서 간 양자를 들이는 과정도 출산 중인 산모의 아이를 순위 동서들이 일방적이고 순차적으로 차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설화는 득남이나 임신양명을 최상의 가치로 삼은 한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욕망 성취의 수단이 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의 급사, 여인 겁탈, 퇴혼(退婚), 양자 등 훌륭한

손주를 보기위해 발생한 일련의 굴곡진 사건들을 통해 이 집안의 인물들은 다른 가족이나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호 친밀한 정서를 교류하는 데에 인색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욕망 성취 과정에서의 조급함과 폭력성으로 인해 가문을 위해 치루는 희생에 대한 평가도 숭고함 외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재취후손형 2>

도선이는 여기를 쓰자 하고 선거사는 여기를 쓰지는겨.

“안 됩니다.”

그라거든. 도선이가,

“응 안 되지. 한 광중 내뤄야(내려야) 돼. 알로(아래로) 내려다 써.”그제는 도선이가 선거사한테 못 당해서루 한 광중 내려다 썼어. 그래 인저 즈 아버지 업토를 해 냈는데,

“당신 마누라가 죽었응께 인제 지고 오라.”

는 거여. [청중: 아버지가 죽었잖어? 청중: 피를 썼는데 마누라가 죽었다는겨?] 주인 마누라가 죽었다는겨. 아 글썸 또 즈 마누라가 죽었다는겨여. 그 기맥힌 일 아녀? 깜짝스럽거든. 그 두 노인네가 두 늙은이가 살다가 마누라가 죽었다니 말여. 참 뭐 금방 죽어두 그 분을 못 풀것어. 그러나 할 수 없는 거여. 죽었다는데 가 보니께 뻗뻗하게 죽었어. 그래 또,

“그 밑에 쓰라.”

는 거여. 즈 아비 묘 밑에 또 쓰라는겨. 선거사는 뭐라고 하시고 하니.

“여자가 사십이 넘은 여자가 아들도 못 낳는 거 지금 자식도 없는데 뭐하느냐? 이거 신세 뒤를 막자는 거냐? 이거 이라닝께 뒤를 잇어줘야 된다.”

타인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명당이 힘을 발휘한다고 할 때, 명당을 권유하고 선택하는 이들이 희생자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당의 희생자로 설정된 인물들 중 신붓감인 처녀들은 좋은 집안과 젊음

만 중요하게 부각될 뿐, 어느 누구도 애꿎은 처녀들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다. ‘사자생손형’인 경우 지관은 자식 잃은 주인을 위로하는 데에 급급했고, 주인은 혼령으로 손자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몰두할 뿐이다. 처녀는 비몽사몽간 혼령에게 겁간당한 후 자식을 낳아 혼인도 못한 채 과부로 시집에 편입된다.

‘재취후손형’인 경우 아내가 급사하자마자 부유하고 젊은 여인이 찾아온다거나, 재취하여 자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난리 속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서사가 확대되면서 아내의 사망을 남편의 행운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오랜 기간 해로한 부부의 의리를 자식생산의 가치로 저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조심스러운 항의와 비난 속에서 제기되지만, 과객은 아내야말로 아들 생산을 위한 존재라는 시각을 자신 있게 설명하면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사자생손형’과 ‘재취후손형’에서 지관은 거리낌 없이 명당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지만, ‘유복자삼정승형’의 경우에는 터를 잡던 지관이 명당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면서 주인의 선택을 기다렸다. 후자에서는 희생자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명당의 희생자가 타인이거나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 본인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경우이나 여인들의 고통과 폭력적인 남녀결합은 가부장의 목숨과 가계계승에 비해 가치 없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계계승과 입신양명을 이념화한 사회라지만 폭력적으로 강제된 희생을 바탕으로 한 명당 설화가 가부장 권력을 재생산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을까?

#### <사자생손 8>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그놈 중놈 뺨에 지가 그렇게 당했이니께, 아 생면 줌 시켜, 아 즈 아버지가 생면 줌 시키라구 그러니께 가슴을 칼루 찍어서

송들었대야. 요놈 땀에 내가 절단났다구. [조사자: 중음요.] 응 그렇지, 뭐. 멀쩡한 처널 갖다가 그렇게 망쳐논 거 아냐.

<사자생손 10>

“내나 고상을 하지 다른 사람, 저같은 놈이 또 고상할 테니까 아이구 성아 부지 죽으시오.” 하구 칼루 찔러 죽였다능 기여. 그 즈 성아부지를. [웃음] 그래 그 자리가

<재취후손3>

“아이구 딱하지. 그 더운 폭양이 밥해서 가지구 와서 주던 그 부인이 죽으니 이렇게 억울할 도리가 워딴옵니까?” 일이대사는 그 부인을 살리구서 손을 두게 할라구 한긴디-. 어! 양자를 하게 할라구 한긴디. 그 부인이 죽었으니, 그 은공을 못 갚는다 그거여. 아 왜 그렇게 했냐구 책망을 하거던.

상상적인 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위의 기준이자 도덕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sup>20)</sup> 하지만 위의 설화는 욕망에 휘둘러 배우자에 대한 예의, 타자의 몸과 고통에 대한 배려,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므로 결국 상징으로서의 힘도 균열될 수밖에 없다. ‘사자생손형’설화에서는 구연자에 따라 ‘신랑도 보도 못하고 시집살이를 했다’며 여인에 대해 연민을 가지다가 급기야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지관에게 칼을 휘두른다거나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 없다하여 사자생손형 자리를 이는 시부를 살해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화자나 작중 인물이 여인에게 가해진 폭력에 동정을 느낀다거나 여인이 자신의 고통을 미루어 타인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각편들은 설화가 가진 도덕적 한계로 인해 변이된 것이라 하겠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20) 모리스 고들리에, 위의 책, 2011, 56쪽.

를 죽게 하는 ‘재취후손형’의 각편이 가장 적은 이유도 혼인을 인류의 시작으로 인정하며 부부를 무엇보다 소중하고 힘 있는 관계로 생각한 향유층의 의식에 반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1)</sup> 양자·친자의 터를 두고 지관과 승려가 논쟁을 벌인 것이나 남편이 지관에게 조용히 원망을 표현했던 것은 성공적인 결과로도 아내를 죽게 했다는 치부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희생명당은 극단적인 욕망추구로 도덕성을 배제한 채 복을 성취하게 됨으로써 텍스트 내외에서 균열될 수밖에 없었다.<sup>22)</sup>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 가부장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폭력성을 그지없이 형상화 한 희생명당 설화가 욕망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이고 반성적인 이해를 동반하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 구복 결과에 반영된 욕망에 대한 반성적 고찰

풍수설화는 대개 가부장 혈연중심 사고의 극단적인 행태이자 집단을 위해 개인 특히 여성들을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면서 욕망을 추구한 설화이지만, 강성숙은 그의 연구에서 남성의 발복과 미래의 행복이 여성과의 결혼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여성인식이 단일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풍수설화에서 남성들의 소극적 대안마련으로 얻어진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은, 어쩌면 남성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바로 여성적 힘에 있지 않은지 묻고 있다.<sup>23)</sup> 이데올로기의 극치에서 저항과 균열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21)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2010, 170쪽 참조.

22) ‘희생’이란 본래 신화적이고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희생명당 설화의 경우 가문 의식이 강화된 조선후기부터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승된 것이므로, 서사 구연 상황에서 가족 규범과 도덕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것처럼, 득남과 출세를 이념적으로 추구한 희생명당 설화의 부도덕한 현상 속에서도 기대와 달리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설화 속 인물들이 구복 행위 끝에 성취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명당을 얻으면서 폭력적인 희생을 치렀더라도 결국 아들을 얻고 성공한 자식을 얻은 그들은 과연 온전히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집단에서 힘없는 자들을 타자화 하고 희생해가며 얻은 성취는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그 욕망이 멈추지 않고 지속·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희생명당 설화 세 유형은 보여주고 있다. 욕망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자인 집안에서 아들 하나만 바라던 가장들의 욕망이 아들이 있는 집안에 이르면 어느새 입신양명할 손주를 보고자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희생의 대상 역시 타인에서 멈추어지지 않는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름 모를 처녀를 희생자로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사자생손형’이 세 유형 중 가장 많이 채록되었고 희생명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복과 인간의 증여체계에 대한 믿음은 더 크고 값진 희생만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대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희생의 대상은 외부의 처녀로부터 가족인 처자로, 중국에는 가부장인 나 자신과 형제에게로 향하게 된다. 인간의 가치를 성공, 생산의 비교우위 속에 논하게 된 이상, 희생 또한 ‘유복자삼형제형’에서 가부장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것처럼 보다 숭고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로써 타자에 대한 불선(不善)과 강요된 희생 속에 쌓은 업은 언제라도 가부장사회의 주체들을 겨냥하게 되고, 가장의 희생조차 효나 중시 조로서 태도로 기대하게 되므로 개인은 누구나 전체에 의해 항상 불안

23) 강성숙, 위의 논문, 2001, 66~69쪽.

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사자생손 26>

그런게 그만 처녀아 집안에는 야단이 나거든요, 양반의 집안에서. 그래가 추달을 받는다, 추달로 봤는다, 꼭 지는(자기) 된 대로 이바굴(이야기를) 했는다, 이바구 그기 맞질 안 허거든, 들어보이까네요. 안 맞은게로 그마 후차(쫓아) 널라 하는기라에. 그래 인자 처자가 말을 해기로, 그 처녀가 말을 해기로, “나를 후차 내지 말고, 우리가 석달 열흘 잔치를 한 번 해 보자.”

(중략)

그런디 한번은 어느 노인이 하나 오더마는 딱 앉았는다, 그 칼 찬 아가 불불 기다니는다, 그 칼을 본께 자기 칼이더라 캐. 그러자 아가 뿔뿔 기가갓고, 자기 물팍에 딱 올러오더라 캐. [청중: 그 아가?] [제보자: 하모, 그 인자 그 아가요] 자기 물팍 기올라 가더라 캐. 그래서 인자 그 아가, 이 칼을 보니 우리 칼이고, 이 아가 기올라오니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딱딱 던기라요. 그래가 인자 그 아로 인자 부모로 찾고, 이라갓고, 그런께 그 산 남개 열매가 안 열었습니까? 그래 인자 참 자손이 자라나서 만득(晩得) 이상으로 잘 하 더랍니다.

또한 ‘사자생손형’ 설화의 경우 대 잇기에 집착하여 여성의 몸을 타자화하면서 겁간까지도 서슴지 않지만, 마침내 이들의 가문을 계승하는 이들은 귀태(鬼胎)로 불리는 사생아들이다. 혼령의 소생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결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여인의 절대적 믿음, 시신과 함께 묻은 부장품, 할아버지에게 다정한 아이의 몸짓에 의해 사라진 듯하지만, 그 기저에 무엇보다 사자생손혈이라는 명당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았던 혼외성관계가 서사에서는 귀태라는 환상장치를 통해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사회라고 귀태가 실제로

귀신의 작용은 아닐 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가부장 신분사회의 성규범 하에서 더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적 피해자들의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혈연에 몰두한 가문 문화 속에 은밀히 수용되는 지점은 풍수 설화에 담긴 복의 전체적 급부에 대해 다시금 생각게 한다. 죽은 아들의 혼령으로 인해 낳았다는 손주는 가부장의 욕망을 위해 여성의 삶과 신체를 도구화한 인물들이 끝내 받아들여야만 하는 복이다. 선행으로 복을 받는다는 증여의 관계가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구복과정으로 전도된 듯하지만, 결국 성취된 복의 실질적 가치를 가늠하자면 인간의 행위와 복의 관계가 변함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재취후손형 『계서야담』>

지난 번 과객이 또 와서는 먼저 물었다.

“그간 부인을 잃고 재취하셨지요?”

주인이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들었다가 부인을 잃었는데, 무슨 닢이 있어 상사(喪事)를 물어보시오?”

손이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의 경사가 있으려고 지난번의 화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러 날을 머무르더니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무 날 밤에 합방을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며 기약을 남겨 두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으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보리다.” 그 후에 과연 그 말대로 아들을 낳았다.

손이 또 와서 크게 기뻐하며 마루에 올라 말했다.

“주인은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정하자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더니 말했다.

“이 아이는 필시 장수하고 잘 자랄 것입니다. 그 혼처는 내가 직접 중매를 맡으리다.”

...(중략)

오래지 않아 손이 또 택일 단자를 전하니 주인은 문벌이 어터하며, 규수의 소양이 어떤지도 묻지 않고, 조금도 의심 없이 손과 함께 혼행을 갖추어 떠났다.

‘재취후손형’ 문헌설화로 후반부가 확장된 ‘임란을 예견한 못 생긴 며느리’(嶺南某郡有一士人 年至四十餘 有獨子遭憾 『계서야담』)의 경우, 명당 덕분에 재취하고 아들을 얻은 선비는 이제 욕망 때문에 현실을 여유롭게 관조하지 못한다. 그는 이 삶을 지속하고 싶어서 또다시 명당과 같은 신물을 얻으려 애쓴다. 더 이상 묘를 쓸 수 없는 그에게 과객(재취후손형을 소개한 선비)이 소개하는 새로운 인물, 곧 며느리는 명당과 같은 존재이다. 과객은 어쩌다가 그를 방문할 뿐, 지킬 것이 많게 된 그는 항상 곁에서 그의 욕망을 응원해 주며 복을 열어 줄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삶의 지속에 대한 선비의 욕망은 혼인에 대한 아들의 기대도 압도해버리고 그 결과 얻게 된 며느리는 천하에 둘도 없는 능력자이지만 추녀였다. 이제 선비는 며느리가 정해주고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sup>24)</sup> 앞선 논문의 지적처럼 부부의 의리보다 왕성한 생산력이 우선되면서 가문의 중심은 늙은 가장보다 생산력을 발현하는 젊은 여성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sup>25)</sup> 발복하고 대를 이었지만, 결과에 대해 부러움의 시선

24) 못생긴 이인 며느리를 신뢰한 시아버지의 태도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양에 현혹되지 않고 그 내면과 능력을 알아보았다는 서사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설화에서 이인 며느리는 명당의 역할을 대치한 인간으로 한 가문에 유입되므로, 신성재의 역할을 하는 며느리를 중심으로 재편된 가족과 행위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석해보고자 했다.

25) 강성숙, 위의 논문, 2001, 69쪽 참고.

은 받을지언정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도 존경을 받지도 못하는 삶인 것이다.

‘첫날밤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서 적선으로 인해 명당을 취하고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적선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한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덕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발현되기 바라는 향유층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6)</sup> 이때 발복한 가문은 세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데,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세인들의 염원과 존경, 믿음과 같은 힘이 바로 그들의 복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희생명당 설화처럼 명당으로만 얻은 복은 불완전하고 불안하다. 명당의 지세는 언제고 변할 수 있고, 욕망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워지지 않고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선이나 나의 덕이 아닌 희생제의로 과하게 얻은 복이라면, 금기와 같은 조건과 거래한 복이므로 복에 대한 대가와 파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앞서 명당을 매개로 본 복과 인간의 관계에는 거대한 증여체계가 성립됨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설화군은 제의적 희생 행위를 통해 불가능한 복을 증여받게 되었지만, 명당이 이들 가문에 미친 힘은 과정 중에 드러난 도덕적인 결함 즉, 인간을 생산의 가치로 물화시키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균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서사에서는 그들의 행위와 복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보다 명당의 효험과 지관의 능력에 대한 경탄이 뒤따르고 오히려 그 신이함에 대한 기대가 복을 지지해주면서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26) 홍나래, 위의 논문, 2011.

## 5. 결론

희생명당 설화는 자손 혹은 성공할 자손을 얻기 위해 가장이나 아내가 죽거나 처녀가 임신하는 위험한 명당에 묘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한다거나 부부의 의리나 남녀의 성윤리에 반하는 이야기가 당대 통용될 수 있었던 데에 어떠한 사고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인물들의 구복과정과 결과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선한 인물은 언젠가 흥해지고 악한 인물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풍수 설화에서는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선과 복의 증여관계로 인식되면서 복이 나오는 통로로 명당을 이해하고 있었다. 복과 선의 증여관계가 타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순환이 후대의 자손으로까지 확장되고 명당에 의해 신성한 힘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설화 속 인물들이 복을 받기 위해 명당을 점유하고자 애쓰는 데에서 명당은 고들이어가 말한 신성재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희생명당 설화에 이르면 언제 복을 받을지 모를 불분명한 선행보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명당을 점유함으로써 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명당을 획득하기 위한 희생은 가장의 죽음, 아내의 죽음, 젊은 여인의 생식력처럼 인간의 생명·삶이므로, 이는 복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제의적 희생이자 의지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신성재를 둘러싼 금기와 취득 과정이 인간과 복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념과 규범을 재생산해낸다고 할 때, 희생명당 설화를 통해 자손·입신양명이라는 욕망 속에 몰화되어가는 가족관계의 모습을 유추하며 당대 혈통과 가문 중심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하게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자에 대한 예의, 타자의

몸과 고통에 대한 배려,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서사는 조금씩 균열될 수밖에 없었다.

욕망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는 희생명당 설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타인과 심지어 가족을 희생해가며 얻은 성취는 결국 더 큰 만족을 위해 욕망하는 주체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희생명당 설화에서 인물들이 받은 궁극적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였다. 이로 볼 때 서사에서는 비현실적인 꿈을 이를 만큼 대단한 명당이 요청되었지만, 명당의 힘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예상된 희생은 욕망을 향해가는 인간에게 초월적 힘이 보여준 경고이자 금기이기도 했다. 명당의 위험함에 대한 머뭇거림과 꺼림이 훗날의 성공으로 덮인다고 해도, 이 데올로기나 가치관이라는 미명으로 지극하게 추구한 결과가 결국 불안한 가장의 위상과 탈규범적 주변인들에 대한 포용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부장 사회의 엄정함 속에서 존재를 내세울 수 없었던 미혼모와 사생아들이 오히려 설화 속에서 당당하게 제도권 내로 포섭되는 지점은 당대 설화에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게 한다. 더불어 가부장 이데올로기적 욕망 성취를 통해 기존 가치를 재확인할 것만 같았던 설화에서 오히려 그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는 점은 설화연구의 현재적 의의라고도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계서야담』, 유희수·이은숙 역주, 국학자료원, 2003.
- 『한국야담자료집성』(『나손소장본』, 『한거잡록』) 정명기 편, 계명문화사, 1987.
- 『한국구비문학대계』(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강성숙, 『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 발복(發福)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이화어문학회, 월인, 2001, 259~271쪽.
- 강진옥, 『구전설화유형군과 의미층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1~290쪽.
- 권선정,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풍수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의 지리학적 해석-』, 『지리학연구』 제 38권 3호, 2004, 259~271쪽.
- 김영희,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 여성 이미지 연구 : <아기장수>와 <우물명당>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267~324쪽.
- 류정월, 『조선시대 운명의 소비에 대한 기호학: 부(富)의 운명론과 귀(貴)의 운명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 4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227쪽.
- 신호림, 『용궁설화에 나타난 증여의 논리와 호혜적 연대의식』, 『구비문학연구』 제 3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293~319쪽.
- 심민호, 『<명당을 흠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301~330쪽.
- 이강엽, 『보은담의 유형과 의미-교환과 증여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7~261쪽.
- 임갑량,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13, 한국학연구소, 1986, 153~176쪽.
- 임재해, 『풍수지리설의 생태학적 이해와 한국인의 자연관』, 『한국민속학보』 9, 31~95쪽.
-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95쪽.
- 최래옥, 『고목생화설화의 성격』, 『관악어문연구』 제 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347~365쪽.



-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04쪽.
- \_\_\_\_\_,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 마르셀 모스, 『증여론』, 류정아 역, 한길사, 2002, 1~303쪽.
- 모리스 고들리에, 『증여의 수수께끼』, 오창혁 역, 문학동네, 2011, 1~350쪽.
- 슬라보예 지젝,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박정수 역, 인간사랑,  
2004, 1~547쪽.

ABSTRACT

A study of the meaning and results of getting fortune in  
“Myoung-Dang demanding victimization(犧牲明堂, MDDV)” of Korean  
Feng-Shui Folktales

Hong, Na-rae

There are some cases of story patterns in Korean Feng-Shui Folktales showing that some people made their dreams come true through getting Myoung-Dang (明堂, a place for grave, which causes good fortune, MD) demanding the sacrifices of their spouse and/or offspring, and the delivery of illegitimate child when the heroine is not yet married.

In this thesis, this kind of story pattern is defined as “Myoung-Dang demanding victimization (犧牲明堂 MDDV)”. I have studied the two points in MDDV over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and results of story development. The one point is the searching for the reason why this kind of anti-ethical folktales could be popularized in that age. And the other point is the finding of the systems of thought appeared in MDDV.

Korean Feng-Shui Folktales have generally showed that MD is the source of good fortune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re is a gift-relationship between good deed and good fortune. But, characters do not wait for good fortune by doing good deed in MDDV. These MDDV characters rather try to occupy MD in spite of any kind of victimization required if they can certainly get good fortune in short time. Any victimization appeared in MDDV symbolizes the human life itself like the death of family member or the immoral fecundity of unmarried woman. The victimization appeared in MDDV can, therefore, be said to be a ritual or intentional deed for attracting good fortune into their life.

We can ascertain the fact that human desires can be unboundedly reproduced through one extreme MDDV whose story is that a desire of

getting son ends in the sacrifice of sons for the purpose of the success of his grandson. Extreme development of desires required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desire in the end. MDDV was a warning and a taboo from the transcendental power to human beings running for the boundless desire.

The meaning of ultimate good fortune which characters got in MDDV makes us agonize to understand it. Interestingly, MDDV shows that problems appeared in MDDV were solved by magnanimity for unmarried mother and illegitimate child although extreme pursuit of patriarchal ideology resulted in MDDV. It makes MDDV a meaningful folktales containing sociocultural function and significance. This point also gives the significance to the study of MDDV for the contemporary life.

**Key Words** Fengshui folktale, Myoung-Dang demanding victimization, sacred commodity, gift relation, preservation of lineage, destiny, fortune

논문투고일 : 2013. 04. 14
심사완료일 : 2013. 06. 01
게재확정일 : 2013. 06. 02